16강 부르디외와 투르니에

1. 로빈슨의 아비투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 방드르디는 완전히 선의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아직 매우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리광을 부린다. 그래서 그는 웃는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폭소를 터뜨린다. 그 웃음은 총독과 그가 통치하는 섬의 겉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그 거짓된 심각성의 가면을 벗겨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로빈슨은 자기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흔들어놓는 그 어린 웃음의 폭발을 증오한다. 사실 바로 방드르디의 그 웃음 때문에 그의 주인은 처음으로 그에게 손찌검을 했다. 방드르디는 주인을 따라 그가 말하는 대로 개념, 원칙, 규율, 신비의 말씀을 반복해 말하도록 되어 있다. 로빈슨이 말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도처에 존재하시며, 끝없이 착하시고, 다정하시며, 의로우신 주인이니 인간과 모든 사물의 창조자이시라. 방드르디는 억누를 수 없다는 듯이 신을 모독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고 철썩하는 따귀 소리와 함께 미칠 듯 타오르던 불꽃을 눌러 끈 것처럼 웃음을 멈추었다. 그가 그렇게 웃은 까닭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삶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착하면서도 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제 그는 흐느낌 때문에 군데군데 토막 난 소리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씹듯이 일러주는 말들을 받아 섬긴다.

그는 사실 총독에게 만족거리를 하나 가져다주었다. 그 덕분에 총독은 마침내 난파선에서 가져온 동전들의 용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방드르디에게 급료를 지불한다. 한 달에 반 파운드짜리 금화 하나씩이다. 처음에 그는 급여액 전체를 5.5%의 이자로 '예금하도록' 조처했다. 그러고 나서 방드르디가 철이 들 나이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서, 이자를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했다. 그 돈으로 방드르디는 가외 음식, 일용품, '버지니아호'에서 물려받은 잡화를 사거나 혹은 단순히 반나절의 휴식-하루를 통째로 돈으로 살 수는 없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만든 해먹 속에서 빈둥거리며 지낸다.『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 들뢰즈에 이르러 욕망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로빈슨은 "내적인 빛", 즉 자본주의적 아비투스에 따라 스페란차섬의 총독으로 부임한다.

→ 그러나 사실 총독부임은 유아론적이고 덧없는 허례의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로빈슨은 바로 자신의 아비투스를 동의하지 않는, 혹은 동의할 수도 없는 방드르디라는 타자와 마주치게 된다.

→ 로빈슨의 구별의식 혹은 차별의식은 여기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그 결과는 바로 폭력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타자보다 우월하다는 구별의식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할 때, 로빈슨에게 그런 구별의식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법은 타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밖에 없었던 것이다.

◇ 방드르디와 마주치기 전에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술회했던 적이 있다. "불행하게도 나의 경우 나의 비참한 고독은 내게도 부족하지 않는 돈의 혜택을 박탈해간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